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초집전...투표율·부동층 표심 최종 변수

보수·진보 세 결집 뚜렷...미세 이슈에도 선거관 출렁

20대 대선의 최대 변수였던 야권 후보단일화가 27일 결국 무산 수순을 밟으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접전 양상이 선거 당일까지 계속되면서 역대급 초집전 결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표율과 부동층 표심의 향배 등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보수와 진보 등 진영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에서는 지지층 결집은 물론 부동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남은 대선기간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진영은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박빙 열세에서 초박빙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3·9 대선까지 남은 열흘 동안 중도 및 부동층 공략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

이고 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얼음이 녹듯이 이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면서 선거 막판 거대한 물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속된 TV 토론으로 실질적 '여론 검증'이 진행되면서 정권교체론 중심의 구도론에서 후보자 역량검증의 인물론으로 유권자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 측에서는 정치개혁안과 통합 정부론을 쌍두마차로 앞세워 중도 성향 부동층을 흡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균형을 허물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정권교체 여론을 '정치교체론'으로 대체해 막판 선거구도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선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 등을 고려로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정치개혁 연대'를 통해 소위 '반윤(反尹) 텐트'를 퍼

는 전술도 병행하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이날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치개혁안의 당론 채택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후보단일화 결별 등의 약재에도 경합 우세를 보이고 있는 전체적 판세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후보 단일화 결별이 보수 진영의 결집을 부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의 호남을 타겟으로 하는 서진정책 등 외연 확장 전략이 보수 진영의 지평을 넓히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윤 후보 진영에서는 남은 대선 기간 동안 '반(反)이재명 세력 연대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호남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과 정치적 기반인 영남 민심 결집을 통해 수도권에서 정권교체의 기발로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갈수록 어려운 민생 경제와 방역 실패 책임론 등이 여전히 민심의 저변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윤석열 바람이 거세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정치 초년생이지만 진솔한 윤 후보의 생각을 바탕으로 민심에 전파하며 부동층 표심 잡기에도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 대선 막판, 통합과 포용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중도 성향 유권자 지지도 견인해 낸다는 전략이다. 강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20·30세대와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투표 독려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남은 열흘간 '물지마 정권교체'가 아닌 '더 좋은 정권교체'를 이룰 책임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점에서 양강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중도·부동층을 적극 공략, 극적인 역전에 나선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10%대 지지세를 우선적으로 확보한 뒤, '양강' 후보의 빈틈을 파고들며 추가적인 지지를 상승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부터 1박 2일간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을 방문하는 한편 남은 기간 '최대 승부처' 수도권 유세를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대선이 가까워 오히려 양강 후보의 지지층 결집 흐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지가 과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9 대선까지 양강 구도 속에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공략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유례없는 비호감 대선에 지치고 실망한 유권자가 여전히 20·30%에 이른다는 것이다. 투표를 포기하기보다 미래를 위해 심상정을 선택해달라는 것이다. 사전투표일까지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최대한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지위진 사람들' 캠페인을 통해 보여줬던 진보적 생명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노동, 젠더, 불평등, 기후위기 등을 주제로 하는 '콘서트 유세'로 특정 타겟을 정확히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를 찾아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 찾은 安 "DJ는 국민통합·국가개혁·글로벌 감각 갖춘 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3·9 대선을 10일 앞둔 27일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야권 대선 단일화의 변곡점으로 꼽히는 투표율지 인세(28일)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 '협상 결렬'을 통지한 뒤 예정된 호남 유세 일정에 돌입한 것이다.

안 후보는 아내 김미경 씨와 함께 이날 오전 목포를 시작으로 순천, 여수, 광주 등을 도는 유세 강행군을 벌였다.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찾은 안 후보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

는 국민통합, 국가개혁, 글로벌 감각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계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통합을 하시고 국가 개혁을 하신 대통령이자 또한 글로벌 대통령이시다. 1997년 IMF 금 모으기로 위기를 극복하신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아내 김미경 씨의 고향 여수의 이순신 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안보 이슈가 부각한 것을 의식한 듯 '군비 경쟁'임을 강조하며 민심이 다가왔다. 그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와 달리) 저는 해군 대위 출신으로 유력한 남성 후

보자 가운데 유일하게 군대를 다녀왔다"며 "폴코스 마라톤을 3차례 완주하는 등 체력적으로도 자신 있다. 체력이 있어야 밤새워 일하며 국정을 돌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이자 기업가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저는 코로나 발병 초기 백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부가 제 의견을 들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현 정부를 직격한 뒤 "이번 대선은 향후 20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며 지지자를 호소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문화전당 경영진 정보공개 무성의에 강한 유감"

시민연대 "재단 사장 임명 철회"

지역 시민사회문화단체가 청구한 문화전당재단 경영진 정보공개에 대해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은 문체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는 27일 발표한 논평에서 "문체부가 표명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었지만 정보공개 청구 취지를 외면하고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연대는 23일 문체부를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 청구서 부분공개 답변을 회신 받았다.

시민연대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한다는 문체부의 답변은 문화전당재단 경영진으로 추천된 인사를 정보공개 청구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며 "우리는 경영진으로 누가 추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당재단 경영진 임명 과정에서 일관되게 지역은 패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문체부

는 광주시 및 광주문화예술계 인사와 협의·추천을 통해서 경영진을 임명했다"고 반복적으로 해명하고 있다"며 "문체부가 소들했다는 당사자를 확인하고 진실을 밝혀서 논란을 해소해달라는 취지였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곡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범도 하지 않은 문화전당재단이 경영·영업상 비밀이 도대체 얼마나 많기에 비공개 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는 설립추진단의 역할이 정관 작성 및 정관에 의거한 임원의 추천 역할이라고 밝혔던 문체부의 해명에도 배치된다"며 "문체부가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한 답변을 보면서, 설립추진단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수행하고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문화전당재단 경영진이 임명된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내용 취지를 곡해한 문체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최소한 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임명 철회를 통해서 결사해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4273명·전남 3413명 확진...병원 등 집단감염

광주·전남에서 병원·요양원,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4273명, 전남 3413명 등 모두 7686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주에서는 동구 모 병원 28명(누적 48명), 서구 모 병원 9명(35명), 북구 모 주간보호센터 11명(15명), 광산구 모 요양병원 10명(12명)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 1774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2492명 등이었다. 전남에서는 목포(528명), 여수(493명),

순천(485명), 나주(364명), 광양(230명), 무안(216명) 등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왔다.

목포 모 요양병원 16명(누적 234명), 장성 모 노인시설 9명(13명), 여수 어린이집 6명 등 집단 감염과 확진자 접촉에 따른 일상 감염이 이어졌다.

광주·전남 하루 확진자는 21일 5356명, 22일 7308명, 23일 7503명, 24일 8137명, 25일 8320명 등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다 다시 7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림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매주 금,토,일 광주출발 셔틀버스 운행

당일투어 1인 13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19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후원 승선문의 예약센터
삼도해운, 플래티늄 061-834-3434 데이투어:062-385-0515 아이티여행사:062-382-8866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